논어 9편 자한 21장 · 쓰기 연습

子謂顏淵，曰：「惜乎！吾見其進也，未見其止也！」

이 장의 글자를 문장 순서대로 따라 쓴 뒤, 바로 아래 빈칸에 써 보세요.

子 謂 顏 淵 曰 惜 乎 吾 見 其 進 也

未 見 其 止 也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